

스페인어 명령법에 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심상완

단국대학교

심상완(2021), 스페인어 명령법에 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2(2), 33-55.

초록 본고는 스페인어 명령법에 대해 학습자들이 갖는 세 가지 의문점((i) 부정과 긍정명령은 왜 양립할 수 없는가? (ii) 부정명령에는 왜 접속법이 사용되는가? (iii) 2인칭 tú에 대한 긍정명령에 왜 3인칭 동사형을 사용하는가?)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첫째, Alarcos Llorach(1994) 주장을 재해석하여 부정과 긍정명령이 양립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의 결합으로 형성된 구조에서는 부정이 어간/어근에 배타적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어 그 결과 화자가 의도한 의미가 도출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둘째, 부정명령에 접속법이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 분석을 제시한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접속법의 출현은 부정이 어간/어근에 배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부정명령에 접속법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통사적 관점에서 이유를 설명한다. Neg에 의해 V to C 이동이 차단되면 최후수단으로 명령자질은 phi-자질과 함께 T로 계승된다고 가정하는 다음 동사가 접속법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명령자질의 이동이 T에 형태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iii)을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tú에 대한 긍정명령은 2인칭 형에서 -s를 제거하여 만든다고 설명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핵심어 부정과 긍정명령의 양립 불가능, 배타적 영향, 자질계승, 인칭-형태 불합치

* 세 분 논평자의 유익한 논평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I. 서론

영어의 명령법은 매우 간단하다. 긍정명령은 동사원형을 사용하고 부정명령은 동사원형에 부정(do not/don't, never, etc.)을 첨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스페인어의 명령법은 더 복잡하다. 인칭, 수에 따라 동사가 형태 변화를 겪고(habla, hablemos, hablad, etc.), 비격식체냐 격식체냐에 따라서도 동사 형태가 달라지며(habla vs. hable), 긍정명령이냐 부정명령이냐에 따라서도 동사 형태가 달라진다(¡estudia! vs. ¡no estudies!). 게다가 긍정명령에 부정을 첨가하더라도 부정명령이 되지 않는다(no + ¡estudia! → *¡no estudia!). 따라서 초급 수준의 학습자들에게는 명령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은 암기와 반복을 통해 금방 해결되지만 명령법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것과는 별개로 학습자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갖기도 한다.

- Q1) 부정과 긍정명령의 결합이 부정명령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no + ¡baila! → *¡no baila!)
- Q2) 긍정명령과 달리 부정명령에 접속법 동사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no bailes!)
- Q3) 2인칭(tú)에 대한 명령(긍정명령)인데 왜 3인칭 동사형을 사용하는가?
(tú: ¡estudia!)

연구자가 14명(학습자 12명, 문학전공 교수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서면 및 전화 병행)에 따르면 다수가 위와 같은 의문점을 갖고 있었다. 설문 2는 Q1, Q2와 관련이 있고 설문 3은 Q3과 관련이 있다.

설문 내용	YES	NO
1. 스페인어의 명령법이 영어 명령법 보다 더 어렵습니까?	14	0
2. 긍정명령과 부정명령의 동사 형태가 다른 이유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9	5
3. tú에 대한 긍정명령형은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형과 동일하다 혹은 3인칭 형을 사용한다는 설명에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10	4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의문점 Q1, Q2, Q3에 대해 자세한 논의

를 해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부정과 긍정명령의 결합이 부정명령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소개한 다음 본고의 새로운 분석을 제시한다. III장에서는 부정명령에 접속법이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 분석을 제시한다. IV장에서는 의문점 Q3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다음 긍정명령을 만들 때 2인칭 동사형에서 -s를 제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시한다.

II. 부정과 긍정명령이 양립 불가능한 이유

1. 선행연구

영어는 ‘부정 + 긍정명령’이 곧바로 부정명령으로 이어진다(don't + study hard! → don't study hard!). 반면에 스페인어는 ‘부정 + 긍정명령’이 부정명령으로 이어지지 못한다(no + ¡baila! → *¡no baila!). 따라서 부정과 긍정명령이 양립할 수 없는 이유를 궁금해 하는 학습자들이 많다.¹⁾ 그동안 여러 학자들이 범언어적 관점에서 둘의 양립 불가능(incompatibility) 문제를 다룬 바 있다(cf. Rivero 1994, Rivero & Terzi 1995, Zanuttini 1991, 1994, Han 2001, Zeilstra 2006, Biezma 2008, Cavalcante 2011). 여러 학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의미하는 동시에 만족스러운 답을 제시하기가

1) 포르투갈어, 카탈루냐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계통이 다른 그리스어에서도 부정과 긍정명령이 양립하지 못한다. 다수의 로망스 언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들의 조상 언어인 라틴어에서부터 부정과 긍정명령이 양립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다. 라틴어에서는 2인칭에 대한 긍정명령형이 별도로 존재하였고 부정명령에는 접속법이 사용되었다.

(i) Tace! vs. Ne taceas!
 shut up neg shut up-subj
 ‘Shut up!(you)’ ‘Don’t shut up!’
http://www.mythfolklore.net/medieval_latin/grammar/imperative.htm
<http://www.columbia.edu/itc/classics/yeh/L1221/edit/independentsubj.htm>

쉽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Rivero(1994), Rivero & Terzi(1995), Han(2001)은 V(imperative verb)가 C(complementizer)로 이동한다는 가정 하에서 부정과 긍정명령 간의 양립 불가능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였고 반면에 Cavalcante(2011)는 C가 PF-접사(affix)라는 가정 하에서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한편, Biezma(2008)는 긍정명령은 TP와 AspP가 결합된 작은 구조(=vP)인데 부정명령은 TP와 AspP가 포함된 더 큰 구조를 요구하기 때문에 둘이 양립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Zanuttini(1991)도 이와 유사한 설명을 한다.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에서 부정 표시자(pre-verbal negative marker)는 TP 투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긍정명령은 TP 투사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과 긍정명령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Rivero(1994)의 분석과 Cavalcante(2011)의 분석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Rivero는 C(root C)는 명령임을 표시해주는 요소(force indicator)로서 명령자질을 지니고 있어서 명령동사는 이 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C로 이동해야 한다고 본다.

$$(1) \quad [{}_{CP} C_{[imp]} [{}_{TP} V_{imp} [{}_{VP} \dots]]]$$

↑ _____ |

그리고 이동의 근거로 V가 접어(clitic)에 선행하는 사실을 제시한다. 즉, 접어는 T(혹은 T의 투사들 중 하나)에 부착되기 때문에 V가 접어에 선행하는 사실은 C로 이동한 증거라는 것이다.

$$(2) \quad ¡Cómelo! (= [{}_{CP} come_i [{}_{TP} [T [T lo [T \bar{t}_i [{}_{VP} \dots]]]]])$$

한편, 부정과 긍정명령의 결합(no + ¡baila! → *¡no baila!)이 부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없는 이유는 통사적 제약 위반으로 설명한다. V는 명령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C로 이동해야 하지만 C와 T 사이에 위치한 Neg(negation)가 이를 차단한다고 본다. 만일 V가 C로 이동하기 위해 Neg를 뛰어 넘게 되면 공범주 원리(Empty Category Principle)를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²⁾ 부정과 긍정명령

이 양립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 (3) a. *_iNo baila!
 b. [CP C_[imp] [NegP **no** [TP baila [VP ...]]]
 ↑ _____ x _____ |

한편, Cavalcante(2011)는 Rivero(1994), Han(2001)과 달리 V가 C로 이동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신 명령문의 C는 PF-접사(affix)(cf. Bošković 2004)로서 V와의 인접성(adjacency) 하에서 V에 병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부정과 긍정명령이 양립할 수 없는 이유는 C와 V 사이의 no 또는 nunca가 이 둘의 인접성을 깨트려 C가 동사에 병합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³⁾

- (4) a. *_i{No/Nunca} lloira!
 b. [C [**no/nunca** [lloira]]]
 | _____ x _____ |

2. 배타적 영향에 입각한 양립 불가능 이유 분석

연구자는 Alarcos Llorach(1994)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이를 구조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부정과 긍정명령 간의 양립 불가능 이유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Alarcos Llorach(1994, 151)에 따르면 부정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부정이 어간(stem)/어근(root)에 담겨져 있는 어휘적 내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⁴⁾

-
- 2) no가 V의 이동을 차단한다고 보는 Rivero와 달리 Han은 no가 접어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V와 함께 C로 이동한다고 본다. 연구자가 보기에 no는 이중적인 면을 지닌 요소다. 왜냐하면 동사와 함께 이동한다는 점에서는 접어를 닮았지만 동사 없이 홀로 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접어와 다르다(¿Crees que vendrá Juan? - Creo que no. vs. ¿A quién viste? - *Lo.).
- 3) Cavalcante(2011)는 유럽 포르투갈어의 부정핵 não와 부사 nunca를 가지고 설명하였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스페인어의 no와 nunca를 가지고 그의 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 4) Cuando la apelación u orden se refiere a algo negativo, o sea, cuando se sugiere una prohibición, la negación no afecta al morfema de apelación (no se niega la orden), sino solo el contenido léxico de la raíz verbal, como si dijésemos «os ordeno no venir». (Alarcos Llorach 1994, 152)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정상적인” 부정명령 되려면 부정이 동사의 어간에만 배타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bailar* 동사의 경우 상대방에게 부정명령을 내리면 부정은 어간/어근 *bail-*에 담겨져 있는 어휘적 내용(=춤을 추다)에만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부정과 긍정명령이 결합할 경우에는(*no + ¡baila!*) 부정이 명령임을 표시해주는 어미(-a)에게만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결과 화자가 의도한 금지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하자면 부정과 긍정명령의 결합은 화자가 의도하는 의미(=~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가 아닌 다른 의미(=~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를 낳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화자가 명령을 내린 것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bailar* 동사를 이용하여 그의 설명을 간략하게 도식화 하자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화살표는 배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quad \text{no} + \text{¡baila!} \Rightarrow [\text{NEG no}] [\text{STEM bail}] [\text{ENDING -a}]$$

| _____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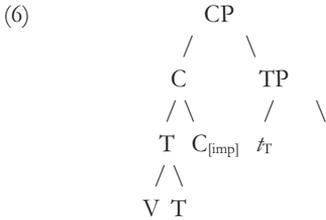
위에서 보듯이 *no*는 *baila*가 명령형임을 표시해주는 요소인 어미 -a에게만 배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인해 ‘*no + ¡baila!*’는 화자가 의도하는 의미(=나는 너에게 춤추지 말 것을 명령한다(*te ordeno no bailar*))가 아닌 다른 의미(=나는 너에게 춤추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no te ordeno bailar*))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결국, 스페인어에서 부정과 긍정명령이 양립할 수 없는 이유는 둘의 결합이 화자가 의도하지 않은 의미를 낳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

그런데 그의 주장은 두 가지 질문을 유발한다. 첫째, 부정과 긍정명령이 결합했을 때 부정이 어간에는 왜 영향을 미칠 수 없는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그의 주장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정과 긍정명령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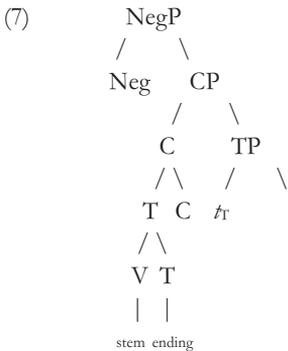
5) 비록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부정과 긍정명령 간의 양립 불가능 문제에 대한 Han(2001)의 분석도 핵심 내용에 있어 Alarcos Llorach의 설명과 큰 틀에서 일치한다.

결합이 화자가 의도하는 금지의 의미를 낳지 못한다면 왜 영어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인가? 즉, 영어에서는 부정과 긍정명령의 양립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령, 부정 do not/don't와 긍정명령 Study!가 결합한 형태인 Do not/ Don't study!는 화자가 의도한 의미(=나는 너에게 공부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를 도출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부정과 긍정명령이 결합했을 때 부정이 어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여러 연구자들(Zanuttini 1991, Rivero 1994, Han 2001)을 따라 긍정명령문은 CP 구조를 지니며 V(=[_T V[_I]])는 [imp] 자질 점검을 위해 C로 이동한다고 보자.



긍정명령이 CP 투사라면 부정과 긍정명령의 결합(no + ¡estudial!)은 Neg와 CP 간의 병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과 긍정명령이 결합했을 때 부정이 어간에 영향을 미칠 수 없

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은 자신에게 더 가까이에 있는 요소에게만 배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자. 그렇다면 위의 구조에서 T는 V보다 Neg에 더 가깝기 때문에 T가 Neg에게 배타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동사를 어간/어근과 어미로 나눌 경우 어휘적 내용이 담겨있는 어간/어근은 V에 상응하고 법, 인칭, 수, 시제 정보가 담겨있는 어미는 T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의 구조에서 Neg에 더 가까운 것은 어미이다. 그 결과 부정은 어간/어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스페인어에서 부정과 긍정명령이 결합하더라도 부정명령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둘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는 구조([NegP Neg CP])에서는 부정이 어미에게만 영향을 미치게 되어 화자가 의도하는 의미가 도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인 영어에서는 부정과 긍정명령의 결합하게 되면 화자가 의도한 금지의 의미가 도출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보기로 하자. 연구자가 보기에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을 듯하다. 스페인어의 명령형 ¡Bail!는 어간/어근 bail-과 어미 -a로 나눌 수 있지만 영어의 명령형 Study!는 동사 전체가 어간/어근이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없다. 따라서 Study!가 부정(donot/don't)과 결합하게 되면 부정은 동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화자가 의도한 의미가 도출되게 되는 것이다. 영어에서 부정과 긍정명령의 양립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8) don't + study! ⇒ don't study
 | — ↑

III. 부정명령에 접속법이 사용되는 이유

이번에는 부정명령에 접속법이 사용되는 이유를 설명해보기로 하자. 연구자는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하나는 앞서 II에서 언급된 배타적 영향에 입각한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통사 이론에 입각한 설명이다.

수 있는 요소는 자동적으로 부정 표시자 *no*밖에 없다. 따라서 *ordenar*와 *no*가 각각 미치는 배타적 영향을 표시하자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 (10) a. ¡No bailes!
 b. (Te ordeno que) **no** *bail*-es
-

Alarcos Llorach에 따르면 부정명령이란 부정이 어간/어근에 담겨있는 어휘적 내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10b)의 구조는 이를 잘 반영해준다. 결론적으로 말해 부정명령에 접속법이 사용되는 이유는 접속법의 출현이 부정으로 하여금 동사의 어간/어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어 결과적으로 화자가 의도한 의미(=te ordeno **no** bailar)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자질계승에 입각한 설명

앞서 II장에서 소개하였듯이 부정과 긍정명령 간의 양립 불가능에 대한 Rivero(1994), Han(2001), Cavalcante(2011)의 분석은 각자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들의 한계는 부정명령에 접속법(¡No bailes!)이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Rivero는 C로의 V 이동이 의무적인 긍정명령(=true imperatives)과 달리 접속법이 사용된 대리(代理) 명령문(=surrogate imperatives)은 C로의 V 이동이 선택 사항이어서⁷⁾ C로 가는 길목을 Neg가 가로막고 있는 경우에는 V가 C로 이동하지 않는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부정명령에서는 부정과 접속법이 양립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Han은 접속법이 발화력 운용자(illocutionary force operator)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화용적 추론(pragmatic inference)을 통해 부정명령을

7) 대리 명령문에서는 C로의 V 이동이 선택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Rivero(1994, 104)는 아래와 같은 예를 제시한다.

- (i) a. [CP **den**-me [TP / el libro!]]
 b. [CP que [TP me **den** el libro!]]

표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모호하고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Cavalcante(2011)는 부정명령에 접속법이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부정명령에 접속법이 사용되는 이유를 통사적 관점에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Rivero(1994)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수용하여 명령문의 C가 지닌 [imp] 자질은 (강한) 비해석 자질로서 문자화(Spell-out) 이전에 점검되어야 한다고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Chomsky(2007,2008)의 자질계승 가설(feature inheritance hypothesis)을 따라 국면 핵(phase head) C는 자신이 지닌 phi-자질을 T에게 물려준다고 보도록 하겠다. 다만, [imp] 자질은 C로 이동하는 명령동사에 의해 점검되기 때문에 phi-자질이 T로 계승될 때 [imp] 자질은 C에 그대로 남는다고 보도록 하겠다.⁸⁾ 한편, 부정명령의 경우도 Rivero의 주장을 따라서 C와 T에 사이에 있는 핵 Neg(no)가 동사의 이동을 차단한다고 보도록 하겠다.⁹⁾ 그렇게 되면 C의 [imp] 자질은 통사부에서 점검되지 못해 도출이 접합면(interface)에서 파탄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영어에서는 도출이 파탄 위기에 처할 경우 최후수단(last resort)으로 허사동사(dummy verb) do를 삽입할 수 있다. 가령, 핵 Neg(not)의 출현으로 인해 V to T가 차단될 경우 최후수단으로 do가 T에 삽입된 다음 C로 이동함으로써 [imp] 자질을 점검할 수 있게 되어 도출의 파탄을 피할 수 있다.

8) Shim, J.Y.(2016, 3)에 따르면 C의 자질이 T로 넘겨질 때 C의 모든 자질들이 T로 계승되는지 아니면 선별적으로(selectively) 계승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한다. Shim, J.Y.은 국면 핵의 자질들이 선별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고 본다. 반면에 Richard(2007)는 합치(convergence)를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모든 비해석 자질들은 T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국면 핵 /*의 phi-자질이 V로 계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준한(2015)을 참고하기 바란다.

9) no 대신에 nunca, jamás, en {la/mi/tu} vida, ni siquiera와 같은 최대투사 유형의 부정어 긍정명령과 결합할 경우에는 동사의 이동이 차단되지 않아 정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비문이다(*nunca baila!) 이는 아마도 최대투사 유형의 부정어 긍정명령이 결합할 때 음성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지만 문법적으로는 여전히 활성상태인(=phonologically empty but grammatically active) 핵 Neg가 동사 이동을 차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11) Do not go!

(i) [CP C_[imp] [TP T [NegP **not** [vP go ...]]] (파탄 위기)

↑ _____ x _____ |

(ii) [CP C_[imp] [TP *do*-T [NegP not [vP go ...]]] (do-삽입)

(iii) [CP *do*-C_[imp] [TP *t*_{do} [NegP not [vP go ...]]] ([imp] 점검)

그러나 영어와 달리 스페인어에는 do-삽입과 같은 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둘 경우 [imp] 자질은 점검되지 못해 도출이 파탄 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최후수단에 호소하는 도리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phi-자질과 함께 [imp] 자질도 T로 계승된다고 보자. 그럴 경우 [imp] 자질은 T에서 명령동사에 의해 점검을 받아 도출의 파탄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설명이 맞다면 부정명령에 접속법 동사가 사용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도출의 파탄을 막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어떤 자질이 불가피하게 이동할 경우에는 이동의 결과가 형태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자. 그렇다면 최후수단으로 일어나는 [imp] 자질의 이동도 형태적으로 반영되어야만 할 것이다. 연구자는 부정명령에서 동사가 접속법으로 표시되는 것은 이러한 [imp] 자질의 이동이 T에 형태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고자 한다. 즉, 접속법은 T로의 [imp] 자질 이동의 형태적 반영(a morphological reflex of movement of [imp] feature to T)인 셈이다.

(12) ¡No bailes!

(i) [CP C_[imp, φ] [NegP **no** [TP [T baila_{imp}]...]]] (파탄 위기)

↑ _____ x _____ |

(ii) [CP C_[imp, φ] [NegP no [TP [T_[imp, φ] baila_{imp}]...]]] ([imp] 이동)

| _____ ↑

(iii) [CP C_[imp, φ] [NegP no [TP [T_[imp, φ] baila_{imp}]...]]] ([imp] 점검)

↑ _____ ↑

(iv) [CP C_[imp, φ] [NegP no [TP [T_[φ] bailes]...]]] (이동의 형태적 반영)

IV. 학습자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의 설명

1. 인칭과 형태 간의 불합치

이번에는 서론에서 소개한 의문점 가운데 Q3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하자.

Q3) 2인칭(tú)에 대한 명령(긍정명령)인데 왜 3인칭 동사형을 사용하는가?
 (tú: ¡estudia!)

연구자는 국내외에서 출판된 초급, 중급자용 학습교재 21권(국내 12, 국외 9)을 대상으로 tú에 대한 긍정명령 형성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보았는데 이들 가운데 16권에서(76%)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형과 연관을 지어 설명하고 있었다. 원문 그대로 몇 개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¹⁰⁾

- (i) “tú에 대한 긍정 명령형 규칙 형은 직설법 현재 시제 3인칭 단수형과 형태가 동일합니다.”
 (양성혜 외 4인 2019, *Curso de español*, intermedio)
- (ii) “단수 2인칭 tú에 대한 명령은 동사의 현재 3인칭 단수형을 사용합니다.”
 (김선이 2018, 우리들의 메타스페인어 첫걸음)
- (iii) “El imperativo de la persona *tú* es **igual que la tercera del singular** del presente de indicativo.”
 (Oliva & Quiñones 2003, *Redes-nivel 2*)
- (iv) “For the familiar affirmative commands, **use the third person singular form** of the present indicative.”
 (Nissenberg 2004, *Complete Spanish Grammar*)

반면, 직설법 현재 2인칭 단수형(이하 2인칭 단수형)에서 -s를 제거하여 tú에 대한 긍정명령을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는 교재는 단 하나에(4.8%) 불과하였다.¹¹⁾

10) 살펴본 도서들의 목록은 참고문헌 뒤에 제시되어 있다.

11) 기타 나머지는 다음과 같다.

- (i) 별도의 설명 없이 동사형(habl-a, com-e)만 제시한 경우: 2권.
- (ii) 긍정명령형은 특별한 형태다/예외다: 2권.

- (v) “La forma para *tú* se obtiene **eliminando la -s final de la forma correspondiente del presente.**”

(Corpas 외 2인 2014, Aula internacional 3(B1))

이처럼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형(이하 3인칭 단수형)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또한 많은 학습자들이 이러한 교재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 Q3은 이러한 설명에 의해 유발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¹²⁾ 스페인어에 2인칭 동사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부정명령에서는 *tú*에 대한 명령에 2인칭 형(접속법 2인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연구자가 보기에는 학습자들이 제기하는 Q3을 해소하거나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i)-(iv)와 같은 설명 보다는 (v)와 같은 설명이 좀 더 낫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v)와 같은 설명은 2인칭(*tú*)에 대한 긍정명령형이 2인칭 형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므로(*hablas* → ¡*habla!*) 인칭과 형태 간의 불합치(person-form mismatch)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¹³⁾

2. -s 제거의 이유

그렇다면 학습자들 중에는 *tú*에 대한 긍정명령을 만들기 위해 2인칭 형에서 -s를 제거하는 이유가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s를 제거하는 것은 청자가 평서문(declarative sentences)과 명령문을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

12) 물론 “*tú*에 대한 긍정명령은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형을 사용한다거나 3인칭과 형태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교재 집필자들의 의도는 긍정명령형이 정말로 3인칭 형을 차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외형적으로 둘이 동일하다는(¡*habla!* vs. *habla*) 의미에서 학습의 편의상 그렇게 설명한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설명은 (v)와 같은 설명에 비해 학습자의 의문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13) *tú*에 대한 긍정명령형을 3인칭 단수형과 연관 지어 설명하게 되면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형과 목적대명사가 문장에 출현하면 목적대명사는 동사에 선행한다(*lo come*). *tú*에 대한 긍정명령을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형을 사용하여 만든다면 왜 긍정명령에서는 목적대명사가 동사 뒤에 출현하는가?(*cómelo*)”. 이 질문에 대한 본고의 설명은 IV.3에 제시된다.

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영어의 평서문에서는 인칭대명사가 주어 위치 ([Spec, TP])에 출현하는 것이 원칙이다({he/*[e]} went home). 따라서 (두 구문 간에 존재하는 억양 차이는 별도로 제쳐두고) 화자가 Love me라고 말했다 경우 청자가 이를 평서문 You love me로 오해할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평서문이라면 화자가 인칭대명사 you를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평서문과 명령문은 동사의 형태가 동일하지만 둘은 인칭대명사의 출현 유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You love me vs. Love me) 청자는 인칭대명사의 출현 유무를 통해 화자가 발화한 문장이 평서문인지 명령문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¹⁴⁾

반면, 스페인어는 영어와 다르다. 스페인어는 영주어 언어(null subject language)이기 때문에 평서문이라 할지라도 강조나 대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칭대명사가 주어 위치([Spec,TP])에 출현할 필요가 없다. 이 점은 학습자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만약에 평서문에 사용되는 2인칭 동사형 (bailas)을 tú에 대한 긍정명령형으로 그대로 “재사용” 한다면 다음과 같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아무런 사전 상황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out of the blue)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명령문 bailas를 말했다고 보자(평서문과 명령문 간에 존재하는 억양 차이는 일단 제쳐두자). 그럴 경우, 이 말을 듣는 청자는 이것이 평서문인지 명령문인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즉, 화자는 bailas를 명령문으로 말했다 하더라도 청자는 이를 평서문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혹은 평서문인지 명령문인지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¹⁵⁾ 연구자는 스페인어가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전략”을 채택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특별한 전략이란 tú에 대한 긍정명령 동사형을 평서문 2인칭 동사형과 형태적으로 다

14) 다만, 강한 분노(strong irritation)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명령문에도 인칭대명사 you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you에 강세가 주어진다.

(i) You be quiet!, You mind your own business!
 (Greenbaum & Quirk 1990, 242)

15) 문맥에 따라서는 평서문도 명령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

(i) a. Te callarás y harás lo que se te dice.
 b. Ordenas la habitación ya mismo.

르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즉, 평서문 2인칭 동사형에 어떤 형태적 변화를 가한 것을 명령동사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2인칭 동사형에 가해지는 형태적 변화는 동사에 따라 달라서 축소가 될 수도 있고 대체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bailar와 같은 규칙동사의 명령형은 작은 형태적 축소(-s만 제거)가 적용된 것이고(bailas → baila), poner, salir와 같은 동사의 명령형은 좀 더 큰 형태적 축소(어미 전체 제거)가 적용된 것이며(pones → pon, sales → sal), ser와 같은 동사의 명령형은 동사형 전체를 대체하는 가장 큰 형태적 변화가 적용된 것(eres → s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16) 17)}

이처럼 스페인어에서는 축소 혹은 대체와 같은 형태적 변화 전략을 통해 명령문을 평서문과 구별시킴으로써 청자는 명령문과 평서문을 혼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명령문을 평서문과 구분하기 위해 영어와 스페인어가 채택하는 전략의 차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명령문을 평서문과 구분하기 위한 전략 차이	
영어	2인칭 대명사의 생략: you dance → dance
스페인어	2인칭 동사형의 축소: bailas → baila

논의를 정리하자면 tú에 대한 긍정명령형(¡baila!)은 2인칭 단수형(bailas)에 형태적 축소(-s를 제거)를 가한 결과로 나온 형태이지 3인칭 단수형(baila)을 차용해 온 것이 아니다.¹⁸⁾ tú에 대한 긍정명령형(¡baila!)과 3인칭 단수형(baila)이 형태적으로 같은 것은 우연일 뿐이다.

16) ven, ten의 경우는 어미 제거 이외에 또 다른 형태적 변화(ie → e)까지 적용되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리고 vosotros의 명령형(bailáis → bailad)은 어미의 일부만을 대체하는 형태적 변화가 적용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7) tú에 대한 긍정명령형을 3인칭 단수형과 동일하다고 설명하게 되면 venir, poner, ser와 같은 동사들의 명령형을 불규칙 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동사들은 3인칭 단수형(viene)과 명령형(ven)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반면, 본고의 설명에서는 규칙 형과 불규칙 형 간의 차이는 명령형을 만들기 위해 2인칭 동사형에 가해지는 형태적 변화의 크고 작음의 차이로 귀결된다.

18) 통사론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2인칭 긍정명령형을 가리켜 ‘true imperative’라 부른다 (cf. Rivero 1994, Zanuttini 1991).

3. 동사와 목적대명사 간의 어순

이번에는 긍정명령문에서 (직접, 간접) 목적대명사가 동사 뒤에 출현하는 현상(cómelo, dámele)이 IV.2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분석 내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학습자들은 암기를 통해 목적대명사가 긍정명령 동사 뒤에 위치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학습자들에게 목적대명사가 긍정명령 동사 뒤에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보라고 한다면 학습자들 중에는 긍정명령 동사가 동사원형(debes *estudiarlo*)과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긍정명령 동사는 어떤 이유로 동사원형처럼 행동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편의상 *estudiar*를 가지고 설명해보자. 2인칭 *estudias*의 어미 *-as*에는 법(직설법), 시제(현재), 인칭(2인칭), 수(단수)에 관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담겨져 있다. 그런데 긍정명령형 ¡*estudia!*는 *estudias*에서 *-s*를 제거하여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완전한 정형동사(finite verb)로 보기 어렵다.¹⁹⁾ 왜냐하면 완전한 정형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미에 법, 시제, 인칭, 수에 관한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s*의 제거로 인해 이들 중 일부도 상실되게 되기 때문이다.²⁰⁾ 따라서 ¡*estudia!*를 비정형동사(non-finite verb) 혹은 정형성이 일부 결여된 동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목적대명사는 비정형 동사에 후행(*estudiarlo*)하기 때문에 목적대명사가 긍정명령 동사에 후행(¡*estudialo!*) 하는 이유도 긍정명령 동사의 정형성 부족(lack of finiteness)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¹⁾

19) *-s*가 제거되지 않은 완전한 형태의 어미(*no lo **comas!***)를 지니는 부정명령에서는 목적대명사가 동사 앞에 위치한다. 이 사실은 긍정명령에서 *-s*의 제거가 동사를 비한정동사로 만드는 원인이라는 본고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

20) 다만, *-s* 제거로 인해 법, 시제, 인칭, 수에 관한 정보 중 어떤 것이 삭제되는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본다. 한편, Zanuttini(1991)는 긍정명령 동사는 시제가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21) 2인칭 복수 명령형(*estudiad*)도 2인칭 복수형 어미의 일부를 떼어내어 *-d*로 대체한 것이므로(*estudiáis* → *estudiad*) 이런 점에서 완전한 한정 동사가 아니다. 그 결과 2인칭 복수 명령형의 경우도 목적대명사가 동사 뒤에 위치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 명령법 체계가 학습자들에게 유발하는 의문점들을 소개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다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과 긍정명령의 결합이 부정명령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긍정명령과 달리 부정명령에는 접속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2인칭(tú)에 대한 명령(긍정명령)인데 왜 3인칭 동사형을 사용하는가?

첫 번째 의문점에 대해서는 Alarcos Llorach(1994)의 주장을 재해석하여 답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정과 긍정명령의 결합이 부정명령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둘의 결합으로 형성된 구조에서는 부정이 어간/어근에 배타적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어 그 결과 화자가 의도한 의미가 도출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 의문점에서 대해서는 두 가지 분석을 제시하였다. 첫째 분석에서는 부정명령은 명령동사(ordenar)를 포함하는 주절이 앞에 “숨어 있는” 구조((Te ordeno que) no bailes)라고 가정한 다음 명령동사는 내포절에 접속법의 출현을 요구하고 접속법은 동사의 어미에 표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연구자는 명령동사는 내포절 동사의 어미에 배타적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부정은 내포절 동사의 어간에 배타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어 그 결과 화자가 의도한 의미가 도출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부정명령에 접속법이 사용되는 이유는 접속법의 출현이 부정으로 하여금 내포절 동사의 어간/어근에 배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통사적 관점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동사는 C의 명령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C로 이동해야 하지만 CP와 TP 사이에 출현하는 NegP의 핵 Neg가 이를 차단함으로써 명령자질은 점검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도출이 파탄 날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최후수단으로 C의 phi-자질이 T로 계승될 때(Chomsky 2007, 2008) 명령자질도 함께 T로 계승되어 V에 의해 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정명령에서 동사가 접속법으

로 표시되는 것은 명령자질의 이동이 T에 형태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세 번째 의문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tú에 대한 긍정명령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주류적” 설명(=동사는 3인칭 단수형과 형태가 동일하다/ 동사는 3인칭 단수형을 사용한다)은 학습자에게 이러한 의문을 유발하는 반면에 “비주류적” 설명(=2인칭 단수형에서 -s를 떼어내어 만든다)은 이러한 의문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주류적” 설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긍정명령을 만들기 위해 2인칭 형에서 -s를 떼어내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s를 떼어내는 것은 스페인어가 지닌 영주어 언어(null subject language)의 특성으로 인하여 청자가 겪을 수 있는 혼란(명령문인지 평서문인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비주류적” 설명은 목적대명사가 긍정명령 동사 뒤에 출현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주류적” 설명보다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 김준한(2015), “스페인어 부정명사구(indefinite NPs) 접어 중복(clitic doubling) 연구”,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Vol. 8, No. 2, pp. 23-42.
- Alarcos Llorach, Emilio(1994),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 Biezma, María(2008), “On the Consequences of Being Small: Imperatives in Spanish,” Muhammad Abdurrahman, Anisa Schardl and Martin Walkow (ed.), *NELS*, Vol. 38, pp. 1-12.
- Bošković, Zeljko(2004), “On the Clitic Switch in Greek Imperatives,” Olga Míseka Tomić(ed.), *Balkan Syntax and Seman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pp. 269-291.
- Cavalcante, Perisson(2011), “Negative Imperatives in Portuguese and Other Romance Languages,” *Selected Papers from 40th Linguistic Symposium on*

- Romance Languages*, Amsterdam: John Benjamins, pp. 205-218.
- Chomsky, Noam(2007), "Approaching UG from Below," Sauerland, U. & Gartner, H-M.(ed.), *Interfaces + Recursion = Language? Chomsky's Minimalism and the View from Syntax-Semantics*, Berlin: De Gruyter Mouton, pp. 1-30.
- _____(2008), "On Phases," Freidin, R., Otero, C. and Zubizarreta, M-L.(ed.), *Foundational Issues in Linguistic Theory: Essays in Honor of Jean-Roger Vergnaud*, Cambridge: MIT Press, pp. 133-136.
- Grande Alija, F.J.(2002), *Aproximación a las modalidades enunciativas*, León: Universidad de León.
- _____(2016), "Imperativo subjuntivo y el espacio desiderativo-apelativo," *Círculo de lingüística aplicada a la comunicación*, Vol. 67, pp. 167-211.
- Han, Chung-hye(2001), "Force, Negation and Imperatives," *The Linguistic Review*, Vol. 18, pp. 289-325.
- Kempchinsky, Paula(1986), *Romance Subjunctive Clauses and Logical Form*, Ph.D. Dissertation, UCLA.
- Greenbaum, Sidney and Randolph Quirk(1990),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Harlow: Longman.
- RAE-ASALE(2010),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Manual)*, Madrid: Espasa.
- Richards, Marc D.(2007), "On Feature Inheritance: an Argument from the 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 *Linguistic Inquiry*, Vol. 38, pp. 563-572.
- Rivero, María-Luisa(1994), "Negation, Imperatives and Wackernagel Effects," *Rivista di Linguistica*, Vol. 6, pp. 39-66.
- Rivero, María-Luisa & Arhonto Terzi(1995), "Imperatives, V-movement, and Logical Mood," *Journal of Linguistics*, Vol. 31, pp. 301-332.
- Shim, J.Y.(2016), "A Feature Inheritance Approach towards Head-final Languages," *Japanese/Korean Linguistics*, Vol. 23, pp. 1-10.
- Tomić, Olga Miseska(1999), "Negation and Imperatives," *CATWPL*, Vol. 7, pp. 191-206.
- Zanuttni, Rafaela(1991), *Syntactic Properties of Sentential Negation: a Comparative Study of Romance Languag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_____(1994), "Speculations on Negative Imperatives," *Rivista di Linguistica*, Vol. 6, No. 2, pp. 67-89.

Zeijlstra, Hedde H.(2006), “The Ban on True Negative Imperatives,” *Empirical Issues in Syntax and Semantics*, Vol. 6, pp. 405-424.

<http://hispanoteca.eu/gram%C3%A1ticas/Gram%C3%A1tica%20espa%C3%B1ola/Participios%20dobles%20-%20Verbos%20con%20doble%20participio.htm>

<https://www.goethe.de/ins/kr/ko/m/spr/mag/21161178.html>

http://www.mythfolklore.net/medieval_latin/grammar/imperative.htm

<http://www.columbia.edu/itc/classics/yeh/L1221/edit/independentsubj.html>

#긍정명령형에 대한 설명 부분을 검토한 교재 목록

<국내서>

김선이(2018), 『우리들의 메타스페인어 첫걸음』, Booker’s Bergen.

김우성(2004), 『초급 실용 스페인어 문법』, 송산.

김은경 외 4인(2006), 『교양 스페인어』, 문예림.

마상영(2014), *Gramática española*, 신아사.

신자영 외 3인(2018), 『초급 스페인어2』,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양성혜(2018), 『스페인어 문법을 부탁해』, 다락원.

양성혜 외 4인(2019), 『Curso de español』, 다락원.

양승관(2010), 『기초 스페인어』, 서해문집.

우덕룡(2010), 『종합 기초 스페인어』, 삼지사.

유연창(2011), 『Total 스페인어 문법』, 삼영출판사.

이강혁(2011), 『스페인어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임효상, 양승관(2005), 『원샷 스페인어 첫걸음』, 서해문집.

<국외서>

Castro *et al.*(2018), *Nuevo español en marcha 3*, SGEL(한국어판, 다락원).

Nissenberg, G.(2004), *Complete Spanish Grammar*, McGraw Hill.

de la Fuente, M. and C. Goldenberg(2021), *Gente*, Pearson.

Millares, S. and A. Centellas(1995), *Método de español para extranjeros*, Edinumen.

Oliva C. and M.J. Quiñoes(2003), *Redes: curso de español para extranjeros(nivel 2)*, SM.

Días, L. and A. Yagüe(2015), *paPELEs: gramática del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nivel A*), MarcoELE.

Concha M. and M. Tuts(2016), *Cinco estrellas: español para el turismo*, SGEL.

Aragonés L. and R. Palencia(2010), *Gramática de uso del español*, SM.

J. Corpas *et al.*(2014), *Aula internacional 3(B1)*, Difusión.

심상완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유럽중남미 학부
pablo@dankook.ac.kr

논문투고일: 2021년 7월 24일

심사완료일: 2021년 8월 21일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24일

On three questions about Spanish imperatives

Sangwan Shim

Dankook University

Shim, Sangwan(2021), "On three questions about Spanish imperatives,"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2(2), 33-55.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i) why are the negation and an affirmative command incompatible?; (ii) why is the subjunctive form used in negative commands?; (iii) why is the 3rd person form used even though it is a command for the 2nd person(*tú*)? Regarding (i), we argue that the incompatibility between the two is because the combination between them fails to derive an appropriate prohibition meaning. Regarding (ii), we offer two analyses. First, we argue that the subjunctive makes it possible for the negation to affect the stem/root and thus the intended prohibition meaning is derived. Second, by assuming that when V to C is blocked, the [imp] feature is inherited by T along with phi-features, we suggest that the subjunctive form is a morphological reflex of the movement of [imp] feature to T. Regarding (iii), we argue that in order to clear and prevent learners' doubt it is better to explain that an affirmative *tú* command is formed by removing -s from the 2nd person singular form.

Key words incompatibility between the negation and affirmative commands, exclusive influence, feature inheritance, person-form mismatch